

# 윤장현 전 시장 첫 재판...공천 관련성 공방

### 본인은 불출석...검찰 "공천 관련 4억5000만원 송금·채용 청탁" 윤장현측 공직선거법 위반 강력 부인...다음 재판은 2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는 등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나섰다.

9일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50)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상대인 김씨만 출석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 "자신을 권 여사로 사칭하고 공천(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을 줄 것처럼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 윤 전 시장에게 '급하게 5억원이 필요한 데 빌려주시면 감사하다. 제가 힘이 돼 드리겠습니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4억 5000만원을 받아내고 자신의 자녀를 노무

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한 혐의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 대해선 "(윤 전 시장이)김씨에게 공천과 관련해 4억 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김씨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광주시 산하 기관 계약직,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4억5000만원을 교부하고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나 공천과 관련해 돈을 건네거나 취직을 부탁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

윤 전 시장측은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

거에 대해선 부적법하다는 의견과 함께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시장측 변호인은 "김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는 동의하지만, 검찰 조서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당시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면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중에서도 일부 내용을 편집해 제출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6·13지방선거 당시 공천과 관련한 신문기사 등을 증거로 첨부한 것에 대해서도 "기자의 견해가 들어있는 등 증거로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3일 오전 11시 1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철회하라"

### 광주환경운동연합 "구체적 사업배경·타당성 밝혀야"

광주환경단체가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광주일보 2018년12월28일자 6면) 철회를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는 '지원배수지 공원화 사업' 실시계획 등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사업배경과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지원배수지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면 매년 1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포기하고, 민간업체에 철거비용·설치비·수익금·이자 등을 포함한 수억원의 막대한 위약금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구지역에 도시공원을 만들려면 무등산이 인접한 지원배수지보다 10년간 방치된 옛 지원중 운동장이나 인근

불법경작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광주시는 공원화 사업 배경으로 태양광 시설에 따른 주민 민원을 꼽지만 태양광 시설은 위험·협오시설이 아니고 주변 온도 상승, 화재 위험성, 토양 오염 등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광주시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 구성비는 2% 남짓으로 대전·대구와 함께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없앤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는 고집스럽게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히고, 이유가 타당치 않다면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에서 비탈을 굴러내린 8t 트럭이 시내버스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트럭기사가 숨졌고, 버스 승객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완도해상 어망에 걸려 구조된 화물선

### 알고보니 선장 없이 운항

완도해상에서 어망에 걸려 해경에 구조된 화물선이 선장 없이 운항한 사실이 드러났다.

9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께 선박 자격증 없이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선박직업법 위반)로 완도선적 98t급 화물선 P호 기관장 박씨를 적발했다. 박씨는 이날 완도군 신지도 북방 0.2해리 해상을 선장 없이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선에는 선장과 기관장 2명의 의무적으로 탑승해야 하지만 선장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

다.

해당 화물선은 레미콘 차량을 생일면 덕우도항에 하역한 뒤 완도항으로 오던 중 스크루가 어망에 걸렸으며, 인근에서 조업하던 2t급 연안복합선 H호가 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기관장 박씨 등을 상대로 선장이 승선하지 않은 이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선박직업법에 따르면 승선 기준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 죽음 부른 경사길 주차

### 화물차 100m 미끄러져 시내버스 '뺨'...화물차 운전자 사망

#### 광주서 버스 승객 9명 부상

9일 오후 2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한 농장 인근 경사길에서 화물차로용 락감을 실은 채 주차돼 있던 8t 화물트럭이 미끄러져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뺨쳤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63)씨가 자신의 화물차에 깔려 사망하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농장 앞에서 화물난로 뺨감 하차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움직이는 자신의 화물차를 멈춰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차는 100여m를 굴러 인근 아파트 앞 도로까지 침범해 지나가던 시내버스의 옆을 들이받았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차량의 제동장치 고장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주점서 합석 요청 거절당하자 엉뚱한 사람에 '흥기 폭발'

### 서부경찰, 40대 구속영장 신청

광주서부경찰은 9일 술에 취해 주점에서 캠핑용 칼을 휘둘러 다른 손님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서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안모(23)씨의 얼굴에 흥기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씨는 얼굴이 10cm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지만, 생명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경찰조사결과, 주점의 단골 손님인 서씨는 이날 다른 테이블에 있던 50대 일행에게 합석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하자 말다툼을 한 끝에 도로변 10여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캠핑용 정글도(칼)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씨가 주점으로 다시 찾아갔을 때 이미 50대 일행이 떠난 뒤였고 서씨는 자신을 말리는 안씨를 50대 일행으로 착각해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사기 혐의 수사 받던 20대여 한달만에 또 온라인 판매 사기



○...가전제품 중고 거래 사기로 경찰수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한달여만에 또다시 온라인에서 "인기브랜드 밭술을 싸게 팔겠다"고 구매자들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철창 행.

○...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A(여·27)씨는 지난해 8월5일부터 12월5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압력밭술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신혼

부부 등 구매자 170여명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적했다는 것.

○...A씨는 범행 초기 몇몇 구매자에게 실제로 밭술을 구입해 보내 주거나 환불해주는 수법으로 신뢰를 쌓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온라인 중고제품 거래시 안전 결제 시스템이나 판매자의 사기 이력을 알 수 있는 경찰청 무료 공공 사이버법 랩을 이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네이버 NAVER 공식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일반상업지역) 토지:500㎡(151평) 건물:2500㎡(756평) 지상6층 **매매가:45억** 중심상권, 아파트밀집지역 (보증금 10억, 월수입 1천)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보증금 4억3천, 월수입 2천7백)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900㎡(272평) 건물: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36억**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770㎡(233평) 건물:1,458㎡(441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토지:52,504㎡(15882평) **매매가:8억** 임야, 계획관리지역
- ★ [토지]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토지:5,324㎡(1611평) **매매가:59억6천만** 투자가치 최상, 도로변 광고효과 좋음
- ★ [토지] 전라남도 여수시 주삼동 토지:9,157㎡(2770평) **매매가:83억1천만** 도로 인프라 최고, 공장이나 물류창고 적합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매매·임대 다량보유**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